



해외양계뉴스



스리랑카
양계분야 관심 집중

스리랑카의 1인당 닭고기 소비량은 3.2Kg(94년)으로 전체 육류 소비량 소비의 17%에 불과하며 계란 소비량은 닭고기 보다 못한 편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에서는 미리스웁, 말라위아 지역에 국제 축산발전기구를 설치하면서 양계부화 확장계획을 적극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는데 이는 농촌발전과 인구증가에 따른 식량공급 차원에서 양계분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음이 인정되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큰 발전을 보인 양계산업이 아직도 세계 수준의 소비량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양계산업 발전은 희망적일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WP)

싱가포르
Lecithin의 이용

최근 화학물질의 축산물 잔류가 소비자들 사이에 큰 문제로 제기됨에 따라 싱가포르 에서는 화학물질이 아닌 Lecithin을 이용하여 닭에 있어서 영양소 소화율을 증가시키는 물론 생산성을 높이는데 그 효과가 인정되어 이를 사료첨가제로 이용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ecithin의 사료첨가제로의 가치는 이미 1930년대말부터 입증되어 가금육에서 Coline부족으로 발생하는 각약증을 예방할 목적으로 이용된 적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생산성 측면과 축산물 잔류문제의 제기로 관심이 한층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ASA)

미국
식육검사제도(HACCP) 본격 시행

전 세계적으로 식육 위생에 관한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미국 클린턴 대통령은 지난 7월 6일 과학적인 방법을 도입, 식육검사제도 개혁을 실시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와 관련해 미농무성(USDA)은 식육위생검사제도 개혁에 대한 최종 규칙인 위생관리제도(HACCP)를 최종 발표하였다. 주요 시행내용에서는 모든 도

축, 도계장에서는 HACCP 제도를 바탕으로 명시된 위생관리 기준(SOPs)을 서면 작성하여 충실히 이행해야 함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 제도는 미농무성 식품안전검사국(FSIS)에서 각 도계장을 규모별로 분류하여 실시상황을 최종 관리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대장균 검사는 검사제도의 효과와 식육위생 개선을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되며 살모넬라 검출 생산기준을 제정하여 엄격한 검사를 실시하게끔 되어있다. (鷄鳴)

일본

전국 가금육 처리장 710개소

농림수산성 통계처리부에서 발표한 '95년도 (12월 30일 현재) 전국 가금육처리장 수는 710개소로 집계, 발표되었다. 이는 전년에 비해 23개소가 감소된 것으로 육계 도계장은 표에서 보듯이 267개소로 4곳이 감소된 반면 1개소의 처리장 마다의 물량은 85톤이 증가한 6,109톤으로 밝혀졌다.

한편 금년 2월 1일 현재 육계사육호수는 3,610호로 사육수수는 1억1천8백50만수로 집계되었다. (鷄卵産情報)

표1. 전국 가금처리장 수와 처리량

단위 처리장수:곳
처리량:톤

구분	12월말현재 처리장수	*가금종류별처리장 수			
		육계	기타육용계	노계	기타가금
처리장 수					
'94	733	271	92	436	93
'95	710	267	96	397	94
전년대비(%)	97	99	104	91	101
처리량/1개소당					
'94	—	6,020	152	364	48
'95	—	6,109	163	407	45
전년대비(%)	—	101	107	112	94

주 : *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처리한 총 가금처리장 수

파키스탄

CP그룹 시장진출 움직임

파키스탄의 양계산업이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보이면서 외국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도 이 분야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관계자에 의하면 곧 태국의 CP그룹이 양계, 사료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변국(중국, 태국, 싱가포르 등)을 순회하면서 가진 세미나에서 밝혔다. (WP)

덴마크

닭, 수수가 증가할수록 활동성 저하 뚜렷

덴마크의 한 조사기관이 평사에서 사육하는 산란계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에 의하면 수수가 증가할수록 닭들은 활동성이 저하되어 계사 밖으로 나가려는 경향이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실험에서는 1~4천수의 닭들을 평사에 기르고 문을 개방할 경우 이중 10~15%에 해당하는 닭들만이 계사밖으로 나와 활동한데 반해 이보다 적은 수에서는 30%로 늘어났으며 500수 이하에서는 90%까지 밖으로 나와 활동한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이같은 실험은 영국에서도 같은 결과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기간중 비가오거나 춥고 더운 날씨에는 닭들도 사람과 같은 행동을 보여주었으며 날씨가 30℃ 이상이거나 5℃ 이하일 때 닭들은 실내에 그대로 남아있었다고 이 보고서는 기록하고 있다. (WP)